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 지난 8월 16일 백석대신총회 소속 구 대신 목사, 장로 모여 향후 진로 모색
| 제45대 증경총회장 박재열목사 '잘 되게 하십니다.' 제하의 말씀 선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제45회기 총회장
박재열목사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이 제42회 정기총회를 예장 '백석' 이름으로 소집 공고 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6일(목) 오후 2시 목사 장로 약 400여명일 참석하여 수원 화성 라비들리조트에서 대신인모임을 열고 "예장 백석은 존재하지 않는 총회"라며 8월 20일까지 '백석대신' 총회로 정정 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1부 예배, 양일호목사(대전 영광교회 담임)의 인도로 부총회장 류춘배목사의 기도, 증경총회장 박재열목사의 로마서 8장28-29절, '잘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가지 우려와 상처로 얼룩진 지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고 선포했다.

대신인모임의 이수일목사는 대신목사와 장로로서 품격있는 언행으로 교단 가운데 위상을 높였고 앞으로 혼란한 현실이지만 품격을 지키자고 광고했다. 증경총회장 유덕식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 이수일목사(원돌교회 담임)는 "41회기는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총회 자체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파행됐다. 그 결과 총회원들의 명예는 물론 '백석대신'이라는 총회의 위상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다"며 "급기야는 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백석과 대신의 싸



▲ 지난 8월16일(목) 수원화성 라비들에서 백석대신 소속 구 대신 목사 장로가 모여 향후 진로 모색하고 있다(사진=교회협동신문)

움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일부정치세력에 의해 현존하지도 않는 '백석'이란 명칭으로 총회를 임의 소집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하면서 인도했다.

부총회장 류춘배목사(경남중앙교회 담임)의 격려사, 증경총회장 유종국목사(제자교회 담임) 영상메시지, 서울동노회 장 류기성목사의 현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모임에 증경총회장은 이부웅목사, 유덕식목사, 구문희목사, 박재열목사, 강경원목사가 참여하였다.

이날 모인 목사 장로들은 대신인모임 자체의 대표성을 가결시켰고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안양노회 이태우목사, 경남노회 홍근성목사, 서울동노회 서순범목사, 경서노회 고혁성목사, 남서울노회 이진호목사들이 발언을 가졌다. 보고와 질의응답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대신목사, 장로 그 누구구나 그 현장을 감수하는 모습은 귀하였고 한편 김영규목사(화계중앙교회 담임)도 기자의 눈에 띄었다. 한편 대신인 모임은 7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 2019 9. 2 개최될 제42회 「백석」 총

회는 현재 한국교계에 존재하지 않는 총회임을 천명한다

△ 「백석대신」 총회의 이주훈 총회장은 2019. 8. 11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 임의공고 된 제42회 「백석」 총회 공고를 2019. 8. 20일까지 「백석대신」 총회로 정정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제42회 「백석대신」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와 더불어 제41회기 동안 총회를 농단한 자들은 조건 없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제42회 총회의 정상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2019. 8. 16일 진행된 공천위원회는 회의의 적법성 및 위원장 선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취

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42회기 공천위원회는 총회 당에서 소집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상비부서를 조직하도록 요구한다

△ 「백석대신」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 현 이주훈 총회장과 일부 정치세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야 하며, 사법부 판단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앙과 양심이 따라 차기 총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대결단을 촉구한다

△제41회 총회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과 혼란이 가장 되면서, 그 결과 유지재단가입을 이행하려는 대신 총회들의 정상적인 가입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통감하며, 제42회 총회가 「백석대신」 총회로 정상화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유지재단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대신인 일동은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이 「백석」 총회를 강행할 경우, 「백석대신」 총회 명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일치단결하여 그 정신을 끝까지 실현해 갈 것을 결의한다 등이다.

구 대신목사, 장로들은 '장로교 정치원리는 성직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회)에 있다. 7개 결의문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납하여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 향후 진로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신교회협동신문 강영철기자

예장 백석대신총회 대신인 결의문

「백석대신」의 통합정신을 지켜온 대신 목회자들은 현재의 총회 상황에 우려하며, 2019년 9월 2일 제42회 총회 개최에 즈음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2019년 9월 2일 개최될 제42회 「백석」 총회는 현재 한국교계에 존재하지 않는 총회임을 천명한다.
- 「백석대신」총회의 이주훈 총회장은 2019년 8월 11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 임의공고 된 제42회 「백석」 총회 공고를 2019년 8월 20일까지 「백석대신」 총회로 정정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 제42회 「백석대신」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와 더불어 제41회기 동안 총회를 농단한 자들은 조건 없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 제42회 총회의 정상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2019년 8월 16일 진행된 공천위원회는 회의의 적법성 및 위원장 선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회의의 적법성 및 위원장 선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취
- 「백석대신」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 현 이주훈 총회장과 일부 정치세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야 하며, 사법부 판단의 결과와 상관 없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차기총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대결단을 촉구한다.
- 제41회 총회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과 혼란이 가장 되면서, 그 결과 유지재단가입을 이행하려는 대신 총회들의 정상적인 가입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통감하며, 제42회 총회가 「백석대신」 총회로 정상화 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유지재단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 대신인 일동은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이 「백석」총회를 강행할 경우, 「백석대신」총회 명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일치단결하여 그 정신을 끝까지 실현해 갈 것을 결의한다.

2019. 8. 16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대신인 모임 발족
위원장 유종국 목사

주요교단의 정기총회 일정 | 주목할 만한 이슈

주요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 일정과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정리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임원 선거는 모두 단독후보로 치러질 예정이다. 신임총회장에는 부산 백영로교회 김태영목사

현 부총회장이 총대들의 신임을 얻고 무난한 당선이 예상되며 목사부총회장에는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목사가 단독 출마했고 장로부총회장은 서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출마했다. 청년들을 총대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세습금지법 폐지, 동성애 관련 현의안이 다수 올라왔다.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총현교회에서 개최한다. 신임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중준 목사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며, 목사부총회장에는 이번이 없는 한 단독으로 출마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진통을 겪어오던 총신대 사태가 신임총장에 이 재서 교수를 선출하는 등 회복궤도에 들어섰지만 총신대 개혁과 회복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예장 백석대신총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와 수원명성교회에서 열린다. 총회 재관과 비대위에 대한 이슈, 또 교단 명칭 변경 등도 총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임원 후보 등록을 받지 못해 임원 선출은 현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 고신총회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다. 신임총회장에는 양산교회

신수인목사가 선출될 것으로 보이며, 목사부총회장 역시 단독으로 출마한 새순교회 박영호목사가 이번이 없는 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예장 순장총회와의 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합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통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장 합신총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충남 덕산 스피라소리에서 정기총회가 열린다. 신임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장원 벨엘교회 문수석목사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신총회는 후보등록 제도가 아닌 총대 모두를 후보로 하는 때문에 전체 임원은 당일 선거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장 총회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총회 소속 아카데미하우스 매각 관련 현의안이 주목된다. 현재 아카데미하우스는 연간 6천만원이 넘는 세금과 휴업, 건물 노후화 등으로 운영난에 봉착한 상황. 이에 총회에서는 매각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며 또 목사 후보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목회자 교육체계 정립 등에 대한 논의도 비중있게 다룰 전망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흥천 대평콘도에서 열린다. 신임총회장 후보로는 대구 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와 부양 침례교회 윤덕남 목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30일에 총회장을 포함 총회 의장단 후보등록을 마감해 임원 선출은 현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교회협동신문 우인식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제49회기 총회장 전광훈목사 담화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제49회기 총회장
전광훈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기 총회를 시작하면서 회개운동부터 시작입니다.

대신총회는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세상의 역사, 사건, 국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던져지려는 절대절명의 위기는 바로 한국교회와 목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로 시작된 노아의 심판처럼 또한 적어도 성당은 매때까지 않았던 중세신부들 보다 더 타락하여 지금 이 시대를 불러 온 결정적 원인을 교회와 목사들이 제공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기 총회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99) 확정판결과 및 총회장 지위 확인의 소(사건번호 2018가합104165) 1심 판결에 의거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대신총회 제49회기 총회장으로 2000여 지교회 및 목사, 장로, 성도님, 대신인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며 저가 잘못했습니다. 또한 교단 설립자인 김치선목사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기 총회를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당당히 맞서던 교단설립자 김치선목사를 대신이 살려 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280여개 총회 가운데 또 하나의 총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교회처럼 대신총회가 복원되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에 내 던져 질 것입니다. 김치선목사의 신학이 곧 애국인 것처럼 대신교단의 복원과 사명은 대한민국의 생과 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주일 한번씩 모여 회개운동과 찬찬을 듣는 빌라델피아교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 등을 준비하여 오는 가을 총회에 속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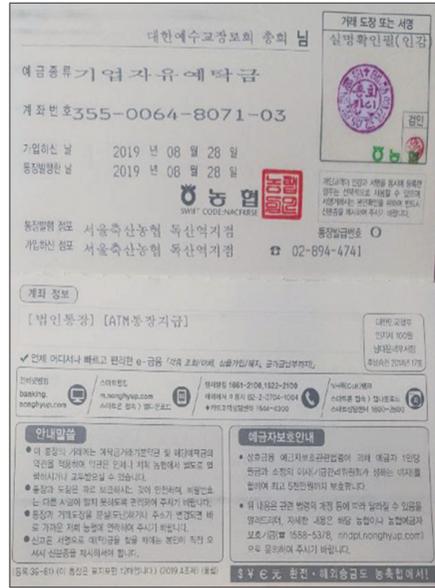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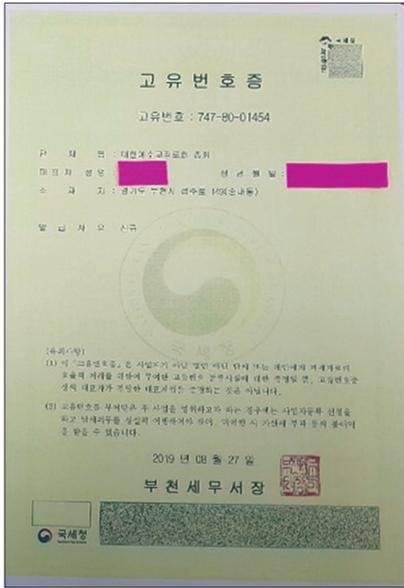
대한민국 1,200만 성도의 희망이 되는 총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출발에 회개와 저가 잘못했으며 하나님 다시 한 번 살려주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대신) 50회기 복원총회를 개회하면서 전광훈목사 올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복원총회 준비위원회 순항

| 대신 복원총회 준비위원회 조직 및 예산 본격 가동

| 총회장 지위 확인의 소 판결전까지 임시고유번호증, 총회명의 총장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복원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마벨리에 뷔페에서 '제5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신총회 복원을 선포하고 '총회장 지위 확인의 소'의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제50회 총회를 속회하기로 하여 마무리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신복원총회는 대신총회 제49회기를 기준으로 44개노회, 선교사 권역-12, 국가-58, 가정-210, 선교사 521명, 그 밖에 총회 기관 등이 복원되었다.

임시총회 후속대책으로 준비위는 행정사무국을 "대신복원총회는 완전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번지(전화 032-664-0153~4)에서 본격적인 사무국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위는 행정사무국 업무를 통하여 총회장 지위 확인의 항소를 담당하고 또한 대신복원총회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위는 복원총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단총회신학교 및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 점차 복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 임시 고유번호(사진 참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백석대신, 비대위, 수호라는 축과 타 총회로 이탈되어 흩어져 있는 대신총회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대신총회의 복원을 지켜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신총회원들이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열악하지만 복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준비위는 9월 2일 복원준비위원회장과 회계, 그리고 사무국장, 사무국원, 사무총장등 복원준비위원회 조직을 마무리했다.

교단지면을 통하여 흩어져 있던 대신인들을 규합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장로교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일선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역모임교재, 설교, 개혁주의 신학 등 총회내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신학적 내용을 공개받아 계속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신학교는

이렇듯, 정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복원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복원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복원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복원총회 준비위원회는 9월 2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마벨리에 뷔페에서 '제5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신총회 복원을 선포하고 '총회장 지위 확인의 소'의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제50회 총회를 속회하기로 하여 마무리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신복원총회는 대신총회 제49회기를 기준으로 44개노회, 선교사 권역-12, 국가-58, 가정-210, 선교사 521명, 그 밖에 총회 기관 등이 복원되었다. 임시총회 후속대책으로 준비위는 행정사무국을 "대신복원총회는 완전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번지(전화 032-664-0153~4)에서 본격적인 사무국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위는 행정사무국 업무를 통하여 총회장 지위 확인의 항소를 담당하고 또한 대신복원총회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위는 복원총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단총회신학교 및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 점차 복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 임시 고유번호(사진 참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백석대신, 비대위, 수호라는 축과 타 총회로 이탈되어 흩어져 있는 대신총회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대신총회의 복원을 지켜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신총회원들이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열악하지만 복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준비위는 9월 2일 복원준비위원회장과 회계, 그리고 사무국장, 사무국원, 사무총장등 복원준비위원회 조직을 마무리했다. 교단지면을 통하여 흩어져 있던 대신인들을 규합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장로교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일선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역모임교재, 설교, 개혁주의 신학 등 총회내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신학적 내용을 공개받아 계속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신학교는